



우리동네 야구대장

스포츠 예능 맛집 KBS, 이번엔 리틀야구!

‘한국 야구계의 전설 4인방’ 박용택, 이대호, 김태균, 나지완이 감독으로 그라운드에 복귀한다! 이들이 이끌 팀은 초등학교 3, 4학년 유소년 선수단. 신인 감독으로 변신한 ‘야구 레전드’와 미래의 별을 꿈꾸는 ‘야구 꿈나무’의 성장 서사를 담은 KBS 2TV <우리동네 야구대장>이 4월 12일(일) 첫 방송된다. 전설과 미래의 뜨거운 케미 속에 전 세대 야구팬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우리동네 야구대장>을 만나보자.

★ 박용택·이대호·김태균·나지완, 리틀야구 감독 데뷔

박용택, 이대호, 김태균, 나지완은 감독으로서 생애 첫 도전에 나선다. 각자 출신 구단 연고지에서 선수를 직접 선발해 팀을 꾸리고 리그전을 치른다. 구단과의 인연을 이어 박용택은 서울 ‘리틀 트윈스’, 이대호는 부산 ‘리틀 자이언츠’, 김태균은 충청 ‘리틀 이글스’, 나지완은 광주 ‘리틀 타이거즈’를 이끈다. 각 팀은 선수 12명, 코치 2명으로 구성돼 시즌당 6경기를 치른다. 1위는 우승팀으로서 ‘야구대장’의 영광을, 꼴찌는 절치부심 재정비의 시간을 갖게 된다. 격려와 미소, 엄격함과 단호함이 오가는 초보 감독들의 4인 4색 리더십은 핵심 관전 포인트 중 하나. 앞서 공개된 티저 영상에선 치열한 기세 싸움 속에 지역 대표 4팀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 예고됐다. 유소년 선수 48명의 빛나는 활약과 감동의 성장 드라마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김승우·이대형·이동근, 화려한 중계 라인업

최고의 중계진이 <우리동네 야구대장> 지원 사격에 나선다. 한국리틀야구연맹(KLBF) 회장으로 리틀야구 발전에 힘쓰고 있는 연예계 대표 야구인 배우 김승우와 4년 연속 도루왕을 차지한 레전드 선수 출신으로 최근 승부처마다 높은 적중률을 보이며 ‘작두 해설’이라 불리는 이대형 해설위원, 야구의 역동적인 재미를 고스란히 전하는 ‘베테랑 캐스터’ 이동근 KBS N 스포츠 아나운서까지 역대급 ‘명품 중계진’이 프로야구 못지않은 열정과 짜릿한 승부의 순간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 한 주의 마무리는 ‘야구대장’과 함께!

<우리동네 야구대장>은 한 주 프로야구 경기가 모두 끝난 일요일 밤, 아쉬운 야구팬과 힐링이 필요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선수들의 짜릿한 경기 순간을 엿볼 수 있었던 유튜브 예고 영상에는 벌써 “야구판 숏돌이가 기대된다”, “KBO의 미래를 키우는 프로그램”, “민고 보는 KBS 스포츠 예능” 등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매주 일요일 밤, 세대를 넘어 야구로 하나가 될 ‘야구대장’의 매력에 다 같이 빠져보자!

▶ 4월 12일(일) 밤 9시 20분 첫 방송 **KBS2**

금요일 야구 중계는 2TV “야구로 불타오르네!”



2026시즌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국민 스포츠’ 야구의 시간이 돌아왔다. 지난해 KBO 정규 시즌 관중 수는 1,2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고, 올 시즌은 개막전에만 총 10만 명 넘는 관중이 모였다.

이런 열기에 발맞춰 KBS는 4월 3일(금)부터 <2026 KBS X KBO 불금야구>를 새롭게 선보인다. 매주 금요일 저녁 2TV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중계하며, 주말을 앞둔 ‘불금’ 시간대를 야구 현장의 뜨거운 분위기로 가득 채운다. 박용택, 조성환 해설위원과 이동근, 이호근 KBS N 스포츠 아나운서가 깊이 있는 해설과 생동감 있는 진행으로 차별화된 중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영민 KBS 스포츠중계부 PD는 “<불금야구>를 통해 야구팬의 관심을 더 끌어 올리면서 이 열기를 올해 9월 열리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야구 중계까지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20분 **KBS2**



‘역대 최고 성적’



동계패럴림픽 감동의 피날레~♪

태극기를 든 선수단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들어서자, 가족과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로 종합 13위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우리 선수단이 3월 17일(화) 금의환향했다. 패럴림픽 사상 최초로 입국 환영식을 겸한 해단식이 KBS 1TV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려졌다. 김윤지 선수는 “이번에 여섯 종목을 뛰었는데, 제주까지 일곱 종목을 뛸 수 있다. 선수가 부족해서 제주를 못 뛰었는데, 방송 보시고 관심 있는 분 있으시면 같이 제주에 나가자.”고 말했다.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종목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건 신의현 선수는 이번 대회를 끝으로 은퇴한다. 김윤지 선수의 ‘삼촌’으로 불리는 신의현 선수는 “그동안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 윤지 선수가 있어서 떠나는 발걸음이 가볍다. 앞으로 노르딕스키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힘을 보태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장애인 스포츠의 환희와 감동, KBS와 함께!

KBS는 이번 대회에 앞서 특집 <있다, 있다: 우리들의 패럴림픽> 5부작을 통해 대한민국 동계패럴림픽의 역사와 주요 종목 등을 소개해 국민적 관심을 환기했고, 동계패럴림픽 역대 최다인 2,780분을 편성해 우리 선수들의 경기를 중계했다. 패럴림픽 선수단 환영식을 생중계한 것도 KBS가 처음이었다. 시청자들은 “이번 패럴림픽 중계해 주신 KBS에 너무 감사합니다.”, “동계올림픽은 안 봤지만, 패럴림픽은 봤네요~~”, “동계올림픽보다 재밌는 건 처음이네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다. 패럴림픽은 끝났지만, 경기는 계속된다. 9월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10월 일본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패러게임이 기다린다. KBS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의 환희와 감동을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금2·은4·동1’ 종합 13위로 역대급 성과

양오열 선수단장은 결과 보고를 통해 “대한민국 선수단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선수단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장애인 동계 종목 강국임을 입증했다. 끝까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최선의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단 여러분은 이미 영웅이다.”라고 말했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환영사에서 “선수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보다 안정적인 훈련 환경과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약속했다. 대회 MVP에는 무려 5개의 메달을 따내며 동계패럴림픽의 간판스타로 떠오른 노르딕스키 김윤지 선수가 선정됐다.

패럴림픽 선수단 환영식 TV 생중계 ‘최초’

포기하지 않는 도전으로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준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은 3월 24일(화) KBS 1TV 특별 생방송 <은빛 질주, 금빛 울림 패럴림픽 영웅들을 만나다>에 출연해 그동안 다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들

KBS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KBS 특집 다큐멘터리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 12·3 비상계엄 증언채록 프로젝트>가 제28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본상을 받았다. KBS가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는 2025년 12월 3일(수) 1TV에서 방송한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는 ‘계엄의 밤’에 펼쳐진 일련의 상황을 시민, 정치인, 언론인, 정부 관계자 등 123명의 증언을 통해 입체적으로 재구성했다. 심사위원단은 민주주의 위기와 극복이라는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를, 비상계엄을 막아낸 시민들의 시선으로 담아낸 점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3월 23일(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자 대표로 마이크 앞에 선 유종훈 PD는 “백스물세 분의 시민, 학생, 정치인, 그리고 그날 계엄 뉴스를 보자마자 뛰어나온 시민분들, 또 그날 동원됐지만 잘못된 일임을 직감하고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던 군경과 관계자들, 이 모든 분이 이 상의 주인공이란 걸 저희 제작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매년 12월 3일이 돌아올 텐데, 그때마다 앰네스티 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좋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 말했다.

2026 KBS 시청자주간 행사 개최

공영방송 KBS의 주인이 시청자라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시청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2026년 KBS 시청자주간 행사가 4월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서울 여의도 KBS 본사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지난해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을 기념해 KBS 시청자위원회 전국대회에서 4월 17일을 시청자의 날로 선포한 이후 처음 열리는 행사여서 더 의미가 깊다.

먼저 시청자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이 4월 13일(월) 오후 2시 KBS 본관 2층 시청자광장에서 열린다. 박장범 KBS 사장의 시청자주간 선포에 이어 KBS 시민기자상과 우수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시상, 어린이합창단 공연 등이 펼쳐진다. 시민들이 화사하게 핀 봄꽃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여의도 벚꽃길과 KBS홀을 잇는 출입구가 4월 14일(화)~15일(수)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방된다. 아울러 KBS국악관현악단의 수준 높은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시청자 감사음악회가 4월 16일(목) 오후 7시 30분 KBS아트홀에서 열린다.

시청자의 날인 4월 17일(금)에는 KBS가 주최하고 한국방송학회, 한국AI 서비스학회,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세미나가 'AI 시대, 공영 미디어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를 주제로 오후 3시부터 KBS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이경전 경희대 교수가 'AI 시대, 공영 미디어는 누구 편에 서야 하는가?', 김정환 KBS PD가 'AI 시대, 공영 미디어는 시청자와 어

2026 KBS 시청자주간 주요 행사 일정

일시	행사	장소
4월 13일(월) 14:00~	2026년 시청자주간 개막식	KBS 본관 2층 시청자광장
4월 16일(목) 19:30~	KBS국악관현악단 시청자 감사음악회	KBS아트홀
4월 17일(금) 15:00~	시청자주간 공동세미나 <AI 시대, 공영 미디어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KBS아트홀
4월 17일(금) 18:00~	제2회 시청자위원회 전국대회	KBS TV공개홀

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가?'라는 키포트를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한다.

이어 올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제2회 KBS 시청자위원회 전국대회가 같은 날(17일) 오후 6시 KBS TV공개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KBS 본사와 18개 총국 시청자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개그콘서트> 팀의 축하공연과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메달리스트들의 깜짝 축하 메시지가 행사장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지역 시청자위원들이 전하는 '전국의 목소리'를 듣고, KBS 신입사원들이 '젊은 KBS의 시청자와의 약속'을 발표하는 순서도 마련된다.

KBS 영문 뉴스에 AI 자막 기술 적용



뉴스를 시청할 때 영상과 자막이 맞지 않으면 몰입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뉴스의 신뢰도에 의구심이 들게 된다. 하지만 수많은 플랫폼과 송출 환경에 맞춰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영상에 자막을 맞추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KBS 미디어기술연구부가 자체 개발한 AI 자막 동기화 기술을 KBS 디지털뉴스1부와 함께 KBS 영문(English) 뉴스 홈페이지에 적용했다. AI 자막 동기화 기술은 한국어 영상의 자막과 다국어 번역 텍스트를 AI가 정확하게 일치시킨 뒤 한글 자막의 타임코드(timecode)를 기준으로 다국어 자막의 동기(sync) 정보를 자동 생성하는 방식으로 동작한다. 이 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자막 오타자보다 체감이 큰 영상-자막 불일치가 해소돼 KBS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막 제작 자동화로 업무 효율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KBS가 제공하는 영문 뉴스는 KBS 뉴스 홈페이지 최상단 오른쪽 'English'를 누르면 볼 수 있다.

▶ KBS 영문 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english/main.do>

KBS 콘텐츠, 미국 지상파 TV로 본다



미국 안방에서 텔레비전으로 KBS 드라마와 예능, 음악방송 등을 무료 시청하는 일이 곧 현실이 될 전망이다. KBS는 3월 16일(월)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미국 대형 지상파 방송

그룹 싱클레어(Sinclair Broadcast Group) 및 자회사 캐스트닷에라(CAST.ERA) 네트워크와 전략적 협력 합의(SCA, Strategic Collaboration Agreement)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로 싱클레어가 보유한 미국 지상파 방송국 185곳에 'K-Channel 82'가 단계적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미국 3천만 가구에 KBS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KBS 전략기획실 'AI 플래시톡' 개최

인공지능(AI)을 통해 지역 방송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AI 플래시톡'(지역총국 대상)이 KBS 전략기획실 주최로 4월 2일(목) 개최됐다. 이번 회의엔 전략기획실장과 지역 총국장,



AI 방송혁신단장, 지역정책실장 등 주요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해 지역별 AI 사업의 확산 전략과 협업 모델 체계 구축, 본사 지원 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근수 전략기획실장은 "AI 플래시톡"은 단순한 점검 회의를 넘어 지역과 본사가 함께 만드는 AI 혁신 플랫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직원들과 함께 KBS의 AI 경험을 축적해 미래로 나아가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요일엔 고막 힐링~"

KBS 심야 뮤직 토크쇼 <더 시즌즈>의 아홉 번째 막이 올랐다. 가수 성시경이 오랜 시간 쌓아온 음악 내공과 진행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을 이끈다. 3월 27일(금)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진행된 제작발표회에는 성시경, <더 시즌즈> 밴드마스터 정동환, 정미영·손자연 PD가 참석했다. 다음은 현장에서 나눈 일문일답.

Q '고막남친' 타이틀이 큰 화제였다. 어땠는지?

성시경 논란을 일으켜 송구스럽다. 제 잘못이다. (웃음) 고막여친, 고막그룹 등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뮤지션이 나오는 방송이라는 뜻이지 제가 고막남친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내용물은 전혀 가볍지 않고 단단하게 가져간다. 방송 시청하시면서 '위트 있는 제목이었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정미영 PD <더 시즌즈>가 우아하고 편안해 보이는 프로그램이지만, 제작진은 백조의 발처럼 물 밑에서 열심히 헤엄치고 있다. 더 관심을 주셨으면 하는 애처로운 마음으로 제목을 정했다. 저희

의 절박함을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다행히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잘 정했다고 생각했다. (웃음)

Q MC로 성시경 씨를 섭외한 이유는?

손자연 PD <이소라의 프로포즈>부터 <유희열의 스케치북>, <더 시즌즈>까지 KBS 음악 프로그램 30년의 산증인 같은 분이다. 최근에 주목한 점은 26년 차에도 자체 콘텐츠 제작과 일본 활동 등 현재형인 가수라는 점. 신인부터 거장 선배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MC라 생각했다.

Q MC 제안 소식을 듣고 어땠는지?

성시경 영광이었다. 솔직히 부담스럽기도 했다. 하지만 몇 번이나 부탁하셔서 이런 게 인연과 타이밍인가 보다 했다. 음악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도 했다. 출연하는 선·후배들이 '시경이 혹은 시경 선배가 있으면 편하게 해주지 않을까?'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

Q 이번 시즌 어떤 차별화된 재미를 느낄 수 있는지?

정미영 PD 시즌 바뀔 때마다 코너를 하나씩 하는데, 이번엔 성시경 씨의 노래 '두 사람'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주옥같은 듀엣곡이 많은데, 매회 새로운 출연자와 새로운 듀엣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동환 '성시경'을 통해서 본인 음악을 들려주고 싶은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된다.

Q 꾸준히 공들이고 있는 혹은 듀엣을 바라는 게스트가 있다면?

손자연 PD 발라드 하는 분과 함께도 좋지만 의외의 조합으로 새로운 음악과 재미를 주는 시도도 해보려 한다. 브라운아이드소울도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한 번만 나와주셨으면. (웃음)

성시경 오늘은 박효신으로 밀겠다. 효신아, 한번 해야 돼. 너무 좋잖아. 딱이야. 소라 누나도 해줬어. 와서 무대 째어줘.

정동환 제가 '찐팬'인 클래식계의 아이돌, 임윤찬 피아니스트를 꼭 모시고 싶다. 클래식뿐 아니라 국악, 월드뮤직 등 다양한 뮤지션을 소개하고 싶다.

Q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정미영 PD 야외 지역이나 대학처럼 탁 트인 공간에서 시청자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지금 객석이 모자랄 정도로 사연 신청자가 정말 많다. 야외로 나가 1~2만 명 많은 분 앞에서 공연해 보고 싶다.

성시경 시작을 잘 못하지만, 하면 정말 열심히 한다. 시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누가 되지 않도록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매주 금요일 밤 11시 10분 **KBS**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다큐멘터리 3일〉 4년 만에 부활

3일 간의 관찰을 통해 우리 이웃의 가장 진솔한 풍경을 담아냈던 KBS <다큐멘터리 3일>(이하 '다큐 3일')이 4월 6일(월)부터 매주 월요일 밤 8시 30분 2TV로 돌아온다.

2022년 '다큐 3일' 종영 당시 1,000명 넘는 시청자들이 폐지 반대 청원을 보내며 아쉬움을 전했다. 그리고 지난해 화제를 모은 '안동역 10년의 약속'은 시청자의 변함없는 애정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2015년 8월 15일 안동역에서 만나 10년 후 재회를 약속했던 출연자와 제작진의 이야기가 특별판으로 방송되자 "낭만과 청춘은 살아 숨 쉰다.", "위로받는 느낌이다.", "다큐 3일 돌아와 줘요." 등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다큐 3일'만의 정서가 많은 이의 마음을 울렸고, 프로그램의 귀환을 이끌었다.

새롭게 돌아온 '다큐 3일'은 72시간 관찰 포맷을 이어가되 시대의 변화를 깊이 있게 통찰한다. 고심 끝에 결정한 '다큐 3일'의 첫 번째 행선지는 서울의 대학가를 가로지르는 '273번 버스'. 14년 전, 수많은 청년의 꿈과 고민을 실어 날랐던 '청춘 버스'의 노선을 다시 따라가 저마다의 속도로 지금을 살아가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이지운 총괄 프로듀서(CP)는 "화려한 섭외와 자극적이고 비현실적인 설정에 지친 시청자들이 '다큐 3일'을 보며 '우리 모두 생각보다 꽤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느끼는 새삼스러운 위로를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 4월 6일(월) 밤 8시 30분 첫 방송 **KBS**